

2004 여름호

마흔하나



# 사랑이 있는 푸른 우리 마을



2004 희망나무심기와 문화체험 현장에서

<http://www.kclf.org>

# 아픔속에 발견한 보물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부모모임 '사랑나눔회'  
회 장 하 명 수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맑게 빛납니다.  
마음 하나 가득 즐거움을 담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 주고픈 그런 넉넉함이 생깁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기에 기쁨도 행복도 슬픔도 더욱 소중합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의 향기가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기쁨도 행복도 슬픔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기에  
더욱 소중한 것, 언제나 곁에 있는 그들의 얼굴 위에  
내려앉은 세월의 흔적이 더욱 정겹습니다.

가슴속에만 담고 있었던 슬픔과 사랑의 마음  
용기 내어 그 마음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지난 날 가슴 아팠던 추억도 용기 내어 말해 보았습니다.  
잔잔한 감동으로 다시 돌아온 위로와 격려  
그리고 우리 환아들은 저의 자녀가 되고, 저는 그들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깊은 절망 속에 있다가도 작은 관심과 배려에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부모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모든 분들  
우리의 소중한 만남 속에서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아픔 속에서 발견한 커다란 보물입니다.



# 오늘 힘들다고 내일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오랜만에 앨범을 정리할 기회가 있어 지나간 수많은 추억들과 사랑스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족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뇌종양으로 3번의 수술과 항암치료 7차, 방사선치료 25회를 하고 지금은 약 3개월만에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김경범의 어머니입니다.

이 시간도 아파서 울부짖는 어린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아침을 맞이하는 병실, 수술실, 방사선실에서 각기 다른 치료들로 고통에 몸부림치며 힘들어하고 있을 아이들과 엄마, 그리고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가슴이 저며옵니다.

6년 전 경범이가 갑자기 축대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후 오른쪽 편마비가 오기 시작해서 알게 된 뇌관에 위치한 뇌종양. 시한부 삶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와 같은 일을 겪어오신 다른 환아의 부모님들처럼 현실이 아니라고, 받아들이 수가 없다고 통곡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답니다  
하지만 그렇게 슬퍼하고만 있을 순 없었죠. 엄마잖아요. 그리고 아빠잖아요..  
희망을 갖고 치료중인 지금까지 수술과 치료를 시작하지 6년이란 긴 세월이 지나갔

고, 수없이 밀려들었을 불안과 통증에 소리 한번, 짜증 한번 제대로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 하루하루를 맡기며 견뎌온 아이는 이제 18살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비록 오른쪽 눈과 오른쪽 팔, 다리가 불편한 모습이지만, “엄마 살아가는 데 지장 없으면 돼. 걱정마”하고 엄마를 위로해 주는 어른스러운 아이가 되었습니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지내오면서 인



생의 마지막 끝자리인 죽음의 문턱을 수차례 겪으면서 너무도 힘겨웠을 텐데, 그렇게 의젓한 말로 엄마를 위로해 줍니다.  
어차피 가지고 가야 할 삶의 방향이라면 슬퍼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보다 오늘 지금 함께 웃을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행복을 느끼면서 밝게 힘차게 살아가야겠지요  
치료중인 우리 아이와 부모님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겁내지 맙시다.  
오늘 힘들다고 내일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불편한 몸으로 갑자기 왼손잡이가 되어서 잘 써지지 않는 글씨를 써야하고, 칠판에 쓰여진 글씨도 빨리 읽을 수 없지만, 체육 시간에 아이들과 마음대로 뛰어 놀 수도 없지만, 그런데도 선생님들께 가장 사랑받는 아이로, 친구들과 한테 가장 인기있는 아이로, 발표시간엔 감사의 노래를 제일 잘 부르는 아이로 자리준 경범이에게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너무도 어린 나이부터 죽음을 생각해야 했고, 힘든 치료과정을 견뎌온 아이이기에, 그 어떤 힘든 세상 속에서도 가장 강한 아이로 자랄 것이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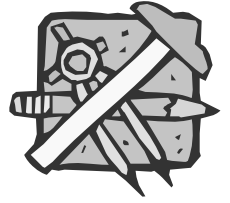
우리들이 소망하는 아프지 않았던 예전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더욱 사랑할 수 있고, 더욱 행복할 수 있으니 감사하는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희망을 잃지만 않는다면, 기필코 우리가 소망했던 완벽한 행복이 주어지리라고 믿어요.

우리 가족여러분, 힘내자구요.

아픔을 함께 해주시는 주변에 많은 응원자들이 계시잖아요.

경범이는 1997년 뇌종양으로 진단받고 서울아산병원에서 현재 치료중입니다.



# 미술치료로의 초대

**미술치료**란 미술(art)과 치료(therapy)가 접목된 것으로 미술 표현활동을 통해 내담자가 갖는 심리적, 정서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원만하고 창조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심리치료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술치료사는 내담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든 내담자의 표현의지를 지지하고 수용하며 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더욱 잘 표현하게끔 적절한 재료와 방법을 소개하여 내담자의 자유로운 미술 표현의지와 감정표출을 격려하고 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 소아암 환자의 심리사회적 어려움



아동은 어른들의 세심한 관찰과 보호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물며 소아암이란 질병을 가진 환아들은 더욱 더 세심한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어린 아동들은 스스로 방어적이 되며 세상과의 소통을 두려워 할 수 있습니다.

소아암 환자의 경우, 진단이 내려지고 치료가 시작되면서 어린 아이들이 견디기 어려운 신체적인 통증과 직면해야 하고, 치료 과정에서도 2~3년 간의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 및 그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감당해야 하며,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예측할 수 없는 예후와 재발의 가능성으로 다른 질환을 가진 아동들보다 더 많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어려움과 변화를 겪게 됩니다. 즉, 대인관계 기피, 부모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 위축, 우울, 불안, 낮은 자존감

감 등의 심리적인 문제와 잦은 결석으로 인한 학습장애, 학업실패, 친구관계의 어려움 등의 사회 적응상의 문제 등의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치료를 위하여 장기간 입원한다는 것은 아동의 경우 그들이 다른 세상으로 옮겨지는 것과 같은데, 치료 중 겪는 신체적 고통과 함께 아동에게 많은 혼란을 줍니다. 입원 중 아동은 수술, 약물치료, 투석, 그리고 다른 의료적 개입 등에서 수동적인 역할을 하게 됨으로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 소아암 환아에 대한 미술의 가치



아동은 이와 같은 혼란의 시기에도 미술표현을 통한 감정 표현을 통해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일은 터치의 편안함과 비언어적인 표현의 자유, 스트레스의 감소, 그리고 통제를 경험할 기회를 갖게 해 주고 자기표현, 갈등해소, 정서적 보상을 얻게 합니다. 아동의 미술 표현은 그들의 주변 세계를 알게 하는 방법이며 의사소통의 방법이고, 감정과 지각의 내적 세계를 탐색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술치료는 환아와 가족, 그리고 의료진간의 의사소통 도구가 될 수 있고, 고통스런

## 미술치료사 안정희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업  
표현예술치료협회 정회원  
청량리 미래정신건강센터 미술치료사 역임

주제에 대해 말하는 것과 이를 건디는 것 사이의 균형을 잡도록 가족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한편, 미술치료에서의 환아는 적극적인 미술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능동적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환아의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합니다.

### 소아암 환아를 위한 미술치료의 목적

- (1) 정서적 표현
- (2) 신체 상태에 대한 상징적 표현의 격려
- (3) 치료 결과에 대한 기대 표현
- (4) 기분 전환을 통한 대처 능력 향상
- (5) 개인의 심상 능력 개발
- (6) 지지 기회를 포함한 환자 간의 상호작용 격려
- (7) 유능감과 통제감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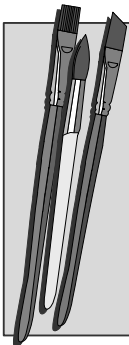


소아암 환아 대상 미술치료는 비지시적인 접근 방법으로 일대일로 진행되며, 미술치료사의 세심한 관찰을 통하여 적절한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적절한 치료적 개입이란 매 회기마다 환아의 개별성을 존중하고, 환아의 신체적, 정서적 컨디션에 따라 미술 매체를 선정하거나 접근하는 방법을 달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환아의 능동적이고 자유로운 표현과 그들이 그림에 부여하는 의미들을 수용하며, 그들 스스로 두려움과 고통을 표출할 수 있게 하여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합니다. 소아암 환아들의 삶에 있어서 미술치료와의 만남이 그들의 삶을 성장시키고 변화하게 하는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 ◆ 미술치료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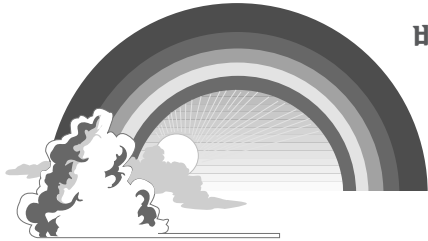
미술치료사 안정희 선생님의 자원봉사로 여의도 우체국 훈 사랑의 집에서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투병생활로 인해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일시 : 매주 화, 목, 토
- ▶ 장소 : 여의도 우체국 훈 사랑의집
- ▶ 문의 : 02) 704-8310





# 의지의 한국인



비교적 짧은 시간에

치료를 끝낸 저를 항상

‘의지의 한국인’ 이라고 불러 주십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부산 해운대구에 살고 있는 23살 건강한 청년 하상훈입니다.

지금의 건강한 모습 이전에는 참으로 힘겹고 고통스런 투병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건강하고 활기찬 성격 때문에 항상 개구쟁이였던 저는 가정형편은 그리 넉넉지 않았지만 화목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1995년 중학생이 되던 그 해.. 저와 저희 가족에게 생각지도 못한 큰 불행이 닥쳐온 것입니다. 항상 친구들과 뛰어 놀기를 좋아하고 평소 운동도 즐기던 제가 어느 날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학교 오르는 것조차 힘들어하여 가까운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히 몸살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 곳에서 몇 가지 검사를 마치고 난 뒤 담당 의사선생님께서 좀더 큰 병원으로 가서 더 자세히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하시어 1995년 5월 5일 어린이날.. 엠블런스를 타고 부산 동아대학교병원 응급실로 가야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저와 저희 가족은 병원에서 어린이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병원으로 가서 바로 입원절차가 이루어지고 저는 곧 병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원한 병실은 소아병동이었는데 그 병실에는 머리카락이 없는 아이들이 누워있었습니다. TV에서나 보았던 친구들의 모습이 그때는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매년 어린이날 즈음해서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이라는 방송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입원했던 그 날도 그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그 방송 속에서 골수검사를 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친구들과 힘든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제가 그 친구들과 같은 병을 앓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얼마 전 TV에서 보았던 그 골수검사를 제가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고통스러운 검사를 마치고 설마.. 설마..하며 기다린 결과는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TV에서 보고, 제 바로 옆 침대에 있던 친구들과 같은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받은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병마와 싸우기 위한 저의 치료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 이런 아이가 있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고.. 꼭 완치 할 수 있노라고.....

### 하 상 훈

1982년 4월 7일생

1995년 5월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

1995년 12월 치료종결

현재 부산 해운대 우체국 청원경찰 근무



힘든 병마와의 싸움은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항암치료를 받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달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 체중은 반으로 줄었으며 40°가 넘는 고열로 밤을 지새기 여러 차례였으며 항암치료 합병증으로 인한 쇼크로 힘든 고비를 여러 번 넘겨야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받는 척수검사와 골수검사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꼭 열심히 치료받아서 이 병마와 싸워서 꼭 이기겠노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었습니다.

치료 과정 중에서 힘든 고비도 많이 있었지만 의료진과 어머니의 정성스런 간호와 가족들의 사랑으로 저는 제 몸속에서 저를 괴롭혔던 그 병마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완치판정을 받은 것은 1995년 12월이었습니다.

저의 담당이셨던 동아대학교부속병원 이영호 교수님께서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치료를 끝낸 저를 항상 '의지의 한국인' 이라고 불러 주십니다.

치료가 끝난 뒤 교수님께서는 제가 세번이나 죽을 고비를 스스로 이겨냈으며 정말 대단하다며 칭찬해 주십니다. 선생님께선 동아대학교병원을 찾는 소아암 환아들과 부모님들에게도 제 이야기

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런 아이가 있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고.. 꼭 완치할 수 있노라고.....

그 후로도 저는 몇 년 동안 정기적인 검사와 외래 진료를 받으며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진학하여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우연히 인터넷에서 지금의 일터를 알게 되었고, 현재 부산 해운대 우체국을 지키는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체국을 지킬 만큼 몸과 마음이 건강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소아암이라는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아와 가족여러분~

저는 감히 소아암은 살고자하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이겨낼 수 있는 병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힘든 병마와의 싸움에서 이기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아무리 무서운 병마도 여러분들의 의지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니까요.

지금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친구들과 그 가족들에게 제 이야기가 자그마한 힘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완치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 오늘도 기도 드립니다.

모두들 힘내세요. 파이팅!!!

# 심터에서는...

## 2004 문화체험



### 딸기도 따고, 두부도 만들고

지난 4월 8일, 서울지역 우체국 헌사랑의 집에선 농촌문화체험을 다녀왔습니다. 유기농법으로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를 방문하여 딸기밭에서 마음껏 딸기도 따보고, 직접 따온 딸기를 커다란 솔에 넣고 이리저리 저어가며 딸기잼도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유기농 야채들로 가득한 점심 식사를 하고 산책겸 방문했던 정약용 생가와 푸른 강은 치료를 받느라 다소 지쳐 있던 가족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었습니다.

산책 후 이어진 또다른 체험... 다름아닌 손두부 만들기였습니다. 생각보다 만드는 데 많은 정성이 필요했던 손두부. 그래서인지 그 맛이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직접 만든 딸기잼을 한

병씩 손에 들고 집으로 향하는 소아암 가족들의 마음은 여러 가지 체험을 한 만큼 더욱 풍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소아암 가족들이 알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주)드림팩토리클럽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서울 우체국 헌사랑의집

### 희망나무 가꾸기



5월 22일.

지난해 희망나무를 심었던 아이들 중, 하늘나라로 떠난 아이들의 가족들과 함께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경기도 연천에 다녀왔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 저 잘 지내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듯 나무들은 뿌리도 잘 자리잡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나무들이 잘 자라서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조혜린 사회복지사 >

## 여의도 우체국 헌사랑의집

### 병실로 배달된 어린이날 선물



어린이날을 맞아 삼성생명 동작지점에서 올해도 아이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위, 자, 지우개, 연필 등으로 가득찬 문구세트이었지요. 아이들은 하나씩 꺼내보며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병원에서 맞이한 어린이날이지만 기억해 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아이들은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꾸준히 관심가져 주시고 봉사해 주시는 삼성생명 동작지점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손은주 사회복지사 >



● 신촌 우체국 헌사랑의집 ●



지난 3월부터 매주 화요일이면 세브란스병원 소아암 병동에서 샘들누리 교실이 열립니다. 노트북을 활용하여 학습도 하고, 다양한 세계도 접할 수 있는 이 시간은 무료한 병원 생활로

지친 아이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샘들누리 교실에 이어, 6월부터는 매주 금요일 공작교실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샘들누리교실과 공작교실은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소아암 어린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임희은 사회복지사 〉

● 광주 우체국 헌사랑의집 ●

4월말 화순 전남대학교병원의 개원과 함께 소아암 환아들이 화순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화순 전남대학교병원은 주변이 산과들로 둘러싸여 있어 공기도 맑고, 구경하고 뛰어 놀 수 있는 장소도 많아 병원오기를 싫어하던 아이들도 소풍 오는 기분으로 병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병원이전 이후, 그동안 병원 내에서 실시하던 종이접기, 십자수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만한 장소가 마련되지 않아 임시적으로 보조침대를 붙여놓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을 텐데, 열악한 상황에 굴하지 않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며 자원봉사 선생님들께서도 힘을 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익숙하지 않아 불편하기도 하지만 쾌적한 환경과 보다 전문화된 의료체계에서 치료를 받음으로써 소아암 어린이들 모두가 가슴에 완치메달을 걸고 미소지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 정 옥 사회복지사 〉

● 부산 우체국 헌사랑의집 ●



부산 우체국 헌사랑의 집에서는 지난 4월부터 월 1회 소아암 어린이 부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 모임에서는 백혈병에 대한 의료진 교육,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및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시간

이라 그런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어머님들과 의료진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의료진과의 대화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과 다른 환자 부모와의 만남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며, 향후 지속적으로 참여하시겠다는 높은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산에서 치료중인 환자 및 보호자들 모두가 참석 가능합니다. 매달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많이 참가하시고 사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051-244-7677

〈 박미주 사회복지사 〉

👉 부산에서 알립니다.

• 부모교육 안내

일시 : 매달 마지막 수요일 11:00 - 1:00

장소 : 부산 우체국 헌사랑의 집

내용 : 6월-항암제 치료에 따른 부작용

7월-영양에 대한 의료진의 교육과 질의응답,

초기 진단시 느끼는 감정 다루기

• 문화체험

갯벌체험(6월 말~7월 초)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애들아...

“오늘이 목요일이었어요? 알았으면 안 내려 왔는데..”

“어!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네. 그만 올라가 쉬어야겠는데 ”  
목요일 오후 너희가 나를 볼 때마다 하는 말들이지. 하지  
만 그러면서도 수업이 시작되면 하나둘씩 자  
리를 잡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정  
말 기특해.

선생님도 처음 너희들을 찾아  
갔을 땐 그냥 TV에서 본 아  
픈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도  
와볼까 하는 마음으로 갔  
지만 현실은 내가 생각했  
던 것과 사뭇 달랐어. 너희  
들은 내가 그동안 보아오던  
또래 아이들하고 조금도 다를  
게 없었어.

미술부단 게임에 정신을 빼앗기는  
남자아이들, “한판만 더 할게요” 라고 약  
간 어색한 애교를 부리는 너희들은 정말 내가  
학교나 학원에서 가르치던 애들하고 어찌나 똑같던지...  
처음엔 생각했던 것과 다른 그 모습이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지  
금은 오히려 평소 내가 가르치던 대로 너희들을 가르칠 수 있어  
좋았었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하지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 하나에도 신경을 쓰  
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다. 사실 선생님은  
지난 크리스마스에 너희들에게 특별한 수업을 해주고 싶어서 생

크림케이크 꾸미는 시간을 가지려 했었어. 그런데 생크림 등의  
유제품에도 균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를 들었을 때 얼마나 내 자신이 한심스럽던지 그 정도  
의 지식은 가지고 있었어야 하는데 내가 그  
냥 일주일에 한번 몸만 왔다갔다 했  
던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이렇게 어설픈 선생님이었  
지만 이제 너희를 한동안  
볼 수 없을 것 같아. 네델  
란드로 2년 동안 공부하  
러 떠나거든. (히딩크 때  
문에 가는 것 아니다 ^^;)   
이젠 너희들의 역양을 따라  
수업 중에 어색한 사투리가 튀  
어나와 나 자신도 당황할 만큼 너  
희들과 많이 익숙해진 것 같은데 별로  
해준 것 없이 가는 것 같아 미안하다.

누가 그랬었지. “우리는요 선생님보다 더 좋은 학교 다녀요. 서  
울대요. 그것도 의대요. 선생님, 서울대학교 밥 못 먹어 봤조. 전  
먹어봤어요. 맛 없어요 ^^”

내가 2년 후, 너희를 다시 만나게 될 때는 서울대가 아닌, 진짜  
너희들 학교를 다니는 모습을 꼭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랄  
게. 그땐 아무 걱정 없이 맛있는 것 실컷 먹자~

2004년 6월 미술선생님이.



윤주희 선생님은 서울대학교병원 옆에 위치한 서울 우체국 훈 사랑의 집에서 자원봉사로 지난 1년 간 미술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해주시는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 한뜻후원자 소식

### 감 사 합 니 다.

신규회원 소개 ( 2004. 3. 1. ~ 2004. 5. 31.) 가나다 순입니다.

김기련 김승희 서지형

\* 2004년 5월 31일 현재까지 615분이 한뜻후원자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 ♥ 수호투사 소식

새로 등록하신 수호투사입니다. (2004. 3. 1. ~ 2004. 5. 31. / 가나다 순입니다.)

강성주 강 혁 김민산 김민영 김봉하 김선아 김원식 김은석 김자연  
김종은 김지훈 명다정 박소영 박애라 박준혁 백봉기 서종석 신청숙  
안태성 우재연 윤태선 이명규 이만호 이승필 이여숙 장재길 전정아  
전진옥 정한남 정효영 조창태 허만동 허한욱 황지혜



- ◆ 새로 신청해주신 수호투사님,  
이미 수호투사가 되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04. 5. 31. 현재까지 1,085분이  
수호투사로 가입해주셨습니다.)
- ◆ 수호투사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kclf.org/후원안내/명예의전당)

### 후원계좌 안내

- ◆ 예금구좌
  - 310-03-002396(조흥은행)
  - 012989-01-003327(우체국)
  - 090-000260-04-015(기업은행)
  - 001-01-2353-890(국민은행)
  - 029-01-176943(농협)
- ◆ 예 금 주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 사랑이 모이는 곳

## 2004 제3회 희망나무심기



2004년 4월 5일.  
무척이나 맑고 따뜻해서 나무심기에 더 없이 좋았던 그 날.  
뚝섬 서울숲에서 39명의 소아암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희망나무심기'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나무에 대한 재미난 설명도 듣고, 엄마 아빠와 함께 직접 나무와 꽃을 심어 보는 색다른 경험으로 모두들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 정말 많은 분들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선, 아이들에게 나무를 제공해 주시고 재미난 설명까지 덧붙여 주신 서울그린트러스트재단과 식수 공간을 마련해 주신 (주)내일신문, 자원봉사를 해주신 한국남동발전(주)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소아암 가족들이 함께 심은 푸른 나무처럼 우리의 아이들도 푸르게 희망차게 자라길 기원해봅니다.

## 삼성편즈 사장훈, 명예홍보대사로 위촉



2004년 3월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대회에서 사장훈 선수에게 재단의 명예홍보대사 위촉패를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평소 소아암 어린이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사장훈 선수는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후원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왔는데, 이날도 그동안 자유투 성공으로 적립한 천만원을 재단으로 전달하였습니다. 큰 키 만큼이나 마음 또한 따뜻한 사장훈 선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경기를 통해 더욱 힘찬 모습 밝기를 기원합니다.

## 우정사업본부의 치료비 지원

우정사업본부의 공익사업으로 2003년에 이어 2004년에도 소아암 어린이의 치료비 지원이 이어집니다. '우체국 한사랑 기금'으로 총 1억2천5백만원이 소아암 어린이의 치료비로 지원될 예정으로, 매월 5명의 소아암 환아에게 각각 300만원의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매년 소아암 어린이에게 변함 없는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우정사업본부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2004 행정자치부 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

행정자치부는 2004년 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2003년에 이어 재단의 '소아암 환아 가족을 위한 미니도서관 운영사업'과 '소아암 환아 가족의 치료지향성을 위한 캠프와 안치잔치'를 선정하였습니다.

소아암 환아와 가족을 위한 정서적 지원사업을 꾸준히 후원하시는 행정자치부에 감사드립니다.

## 신한사랑나눔에서 행복을 찾아가세요



(주)신한카드(대표:홍성균)에서는 고객의 포인트 기부로 이웃을 돕는 '신한사랑나눔'을 2004년 4월 26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 홈페이지 <http://www.shinancard.co.kr>에 접속, '신한사랑나눔' 코너에서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으로 기부처를 지정하시면 소아암 어린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소아암 어린이와 함께 하는 '신한사랑나눔'에 신한카드 고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Origami Peace Tree Spring 2004 in Korea <종이접기로 평화의 나무 만들기>



(주)한국디지털미디어 종이닷컴비(대표:이형찬)에서는 소아암 어린이를 돕는 '종이접기로 평화의 나무 만들기'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5월의 화창한 어느 날 한국디지털미디어 식구들과 소아암 가족들은 종이 접기와 개구리 멀리 뛰기, 비행기 날리기 등의 시간을 함께 보내며 동심으로 돌아가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한국디지털미디어에서는 행사를 통해 모금된 성금 200만원을 재단으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에게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시는 (주)한국디지털미디어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 제14회 경기가족걷기대회



4월 25일 제14회 경기가족 걷기대회가 올림픽공원에서 열렸습니다. 경기고등학교 동문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경기가족걷기대회에서는 해마다 소아암 어린이를 돕기 위한 성금이 모금되며 모금액 전액은 재단으로 후원됩니다. 올해도 역시 동문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소중한 후원금(11,151,000원)이 재단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경기고등학교 동문가족 여러분의 소아암 어린이에 대한 한결같은 관심과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주)드림팩토리클럽, 2004년 무봉콘서트 수익금 전달

재단의 명예홍보대사인 가수 이승환님은 '2004 무봉 콘서트'의 수익금 전액(10,000,000원)을 재단으로 기부해 주셨습니다. 이 후원금은 '차카게살지기금'으로 적립되어 소아암 어린이의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꾸준히, 그리고 묵묵히 소아암 어린이를 돕고 계신 (주)드림팩토리클럽과 이승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알려드립니다.

### 제4회 소아암 어린이 형제캠프 "우리가 만드는 세상"

형제캠프는~! 소아암으로 진단받은 어린이의 장기입원과 잦은 외래치료로 늘 홀로 집에 남겨져야 했던 형제들. 건강하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의 관심에서 조금은 멀어진 형제들이 모여 그 동안의 스트레스를 마음껏 풀 수 있는 자리입니다.

**참가대상:** 소아암으로 진단받은 어린이의 형제들 / 선착순 40명

초등학교 2학년~중학교 1학년

**일 시:** 2004년 8월 10일(화)-8월 12일(목)

**장 소:** 미리내 캠프(경기도 양평군 소재)

**참가비:** 1인당 10,000원

**신청 및 문의:**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 (02)766-7671~3

지역별 우체국 헌사랑의 집

### 재단의 새 일꾼을 소개합니다.

재단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실 김린아 사무국장(전, 영동세브란스병원 사회복지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동안 병원에서 의료 사회복지사로써 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쌓아온 경험으로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 직원들도 새로 오신 사무국장님과 함께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 특별후원 환아 소개 (2004. 3. 1. ~ 2004. 5. 31.)

### 우체국 헌사랑 기금 37,000,000

임경재(간모세포종/동아대학교의료원/부산)

안생현(망막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춘천)

정찬영(급성림프구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경기)

김경록(급성골수성백혈병/동아대학교의료원/부산)

최인선(횡문근육종/삼성서울병원/서울)

정혜운(유희씨종양/고신의료원/울산)

이주용(급성림프구성백혈병/의정부성모병원/경기)

배동민(악성림프종/아주대학교병원/충남)

김진욱(혈소판감소증/여의도성모병원/경기)

김영길1(급성혼합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제주)

김영길2(급성림프구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서울)

박종석(급성림프구성백혈병/세브란스병원/충남)

김소희(수모세포종/의정부성모병원/경기)

이선영(급성림프구성백혈병/부산대학교병원/마산)

장병관(급성림프구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경기)

김영효(신경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전남)

김상훈(중증재생불량성빈혈/성모자애병원/인천)

### 알리안츠 기금 6,000,000

최준영(뇌간교종/동산의료원/경북)

조영준(횡문근육종/부산백병원/김해)

하유정(악성뇌종양/세브란스병원/서울)

### 이래 기금 2,000,000

백태인(신경모세포종/여의도성모병원/서울)

이준석(급성림프구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경기)

### 백재열 기금 2,000,000

조은주(신경모세포종/이대목동병원/서울)

이준석(악성뇌종양/세브란스병원/서울)

### 에스콰이어 기금 2,000,000

이루리(두개강내생식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울산)

### 기타 기금 1,500,000

이지형(뇌종양/서울대학교병원/대전)

# 천사백운동 지원환아

천사백후원금을 지원받은 어린이들을 소개합니다.  
(2004.3.~2004.5.)



**김강빈(남/만 3세)**  
급성림프구성백혈병/전남대학교병원  
2004년 6월 동중골수이식 시행



**김예진(여/만 4세)**  
신경모세포종/이주대학교병원  
2004년 4월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시행



**김유민(여/만 3세)**  
급성림프구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  
2004년 5월 제대혈이식 시행



**김종훈(남/만 12세)**  
유임육종/서울대학교병원  
2004년 6월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시행



**김주원(남/만 14세)**  
재생불량성빈혈/동아대학교의료원  
2004년 7월 조혈모세포이식 시행예정



**김주예(여/만 12세)**  
황문근육종/세브란스병원  
2004년 6월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시행



**김예빈(여/만 14세)**  
급성골수성백혈병/삼성서울병원  
2004년 4월 제대혈이식 시행



**류에온(여/만 3세)**  
급성골수성백혈병/세브란스병원  
2004년 3월 동중골수이식 시행



**민웅기(남/만 2세)**  
급성림프구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  
2004년 4월 제대혈이식 시행



**안태성(남/만 12세)**  
급성림프구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2004년 4월 제대혈이식 시행



**안진환(남/만 13세)**  
골수이형성증/서울대학교병원  
2004년 7월 제대혈이식 시행예정



**윤진산(남/만 1세)**  
급성림프구성백혈병/삼성서울병원  
2004년 7월 제대혈이식 시행예정



**정초철(남/만 12세)**  
급성림프구성백혈병/전남대학교병원  
2004년 6월 동중골수이식 시행



**조대현(남/만 11세)**  
급성림프구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  
2004년 5월 제대혈이식 시행



**최성욱(남/만 1세)**  
급성림프구성백혈병/삼성서울병원  
2004년 7월 동중골수이식 시행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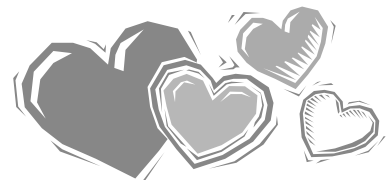
**최용석(남/만 5세)**  
재생불량성빈혈/서울아산병원  
2004년 5월 제대혈이식 시행



**최철호(남/만 7세)**  
급성골수성백혈병/부산대학교병원  
2004년 4월 제대혈이식 시행



**최태호(남/만 1세)**  
급성림프구성백혈병/전남대학교병원  
2004년 6월 동중골수이식 시행





## 천사백운동 참여현황 (2004. 5. 31. 현재)

참여후원자 : 2,851명    구좌수 : 13,928구좌

천사같은 이웃을 소개합니다. (2004. 3. 1. ~ 2004. 5. 31. 까지 처음으로 후원금을 입금하신 분들)

예금주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 국민은행 CMS

김성영 방주영 설동근 송애령 이숙영 이종현  
임희숙 장소연 주은숙

### 기업은행 CMS

김해천

### 농협 CMS

강희정 이명주 이선영 이은정 이지연 전미경  
최현호

### 신한은행 CMS

김명숙 정원재

### 외환은행 CMS

정현희

### 우리은행 CMS

문희주 송진수

### 우체국 CMS

강길성

### 전북은행 CMS

신순희

### 조흥은행 CMS

김경미 남중선 박성호 설현영 이홍용 정주영  
조서연

### 하나은행 CMS

손미자

### 농협(029-01-170940)

심성진

### 후원계좌 안내

경남은행 : 514-07-0175564

광주은행 : 200-107-315315

국민은행 : 031-01-0414-356

기업은행 : 090-000260-04-022

농협 : 029-01-170940

대구은행 : 004-05-179828-001

부산은행 : 070-01-021379-8

신한은행 : 394-01-000694

외환은행 : 141-22-00799-6

우리은행 : 112-04-112571

우체국 : 012989-01-003313

제일은행 : 225-20-385050

조흥은행 : 367-01-192434

하나은행 : 144-121835-00105

한미은행 : 100-59711-251

▶▶예금주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 천사백 후원금, 이젠 편리한 CMS로 납부하세요!!

#### CMS란?

CMS방식이란,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재단사무국으로 후원자님의 주민등록번호와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만 알려주시면 일정한 날짜(15일)에 지정 통장에서 약정하신 후원금이 출금되는 방식입니다.

#### ■ CMS를 신청하시면 이런 점들이 좋아요!!

1. 매년 인상되는 지로수수료와 우편발송요금 절감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CMS는 자동이체 기간을 별도로 연장할 필요가 없으며, 해지 및 변경을 원하시는 후원자님께서 전화(☎02-766-7671~3)나 E-Mail(cancer@kclf.org)을 통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3.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연말정산용 후원금 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후원자님께 발송됩니다.



# 사랑의 모음터

## ◆ 사랑의 헌혈증서 (2004. 3. 1. ~ 2004. 5. 31.)

강창호(3)	권진욱(1)	김명호(1)
김종순(31)	김종천(35)	박정희(25)
반일성(15)	백이민(6)	이동원, 동양대학교 노래세상동아리(40)
이선우(177)	임민지(159)	故정민욱(5)
정지중(25)	천강재(1)	한국전력공사(41)
한화증권(119)	현대기아자동차(100)	KT가락지점(22)

\* ( )는 기증하신 헌혈증 매수입니다.

## ◆ 특별 후원금

2004년 3월 삼성썬더스농구단 10000000	2004년 5월 故박진호모 2000000
2004년 4월 경기고동창회 11,151000	
전남체신청 200000	

## ◆ 후원물품 (2004. 3. 1 ~ 2004. 5. 31.)

경기고동창회 생필품	고은석모 한라봉	권진욱 상품권
김광미 쌀	김영훈 쌀	김희준 쌀
박준범모 책	박찬중 생필품	사랑터 생필품
삼성생명동작지점 문구세트 부채		손민기 문구류
안대승 미술재료	여용기모 목	정혜영 공기청정기
최영석 화장지	연승하모 김치냉장고	

## ◆ 물품 후원 안내

우리 재단은 비품구입비를 절약하기 위해 사무국과 재단이 운영하는 쉼터에 필요한 물품을 기증 또는 무상 기탁을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기증품 하나 하나는 큰 도움이 됩니다.

2004년 여름호는  **동이계약주식회사** 에서 제작지원해주셨습니다.